

공황장애의 개인정신치료

俞 載 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서 론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환자들의 보고로는 이러한 발작이 전혀 예상치 않았고, 돌연히, 뜻밖에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황발작의 유발요인으로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환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찾는 정신역동적인 orientation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노력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모든 공황장애의 환자들에서 어떤 경우나 정신분석적인 혹은 정신역동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정신분석적 orientation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의견일 수 있으나, 많은 환자들의 경우 역동정신적인 요인이 공황발작과 관련이 있다고 Nemiah(1981)은 주장한다.

고로 공황장애의 환자들을 대면할 때, 환자 개개인의 불안의 의미, 환자가 피하게 되는 공황발작을 유발하는 환경의 무의식적 의미, 충동이 있다면 이것이 억압되어야 하는 이유, 이차이득 등의 정신역동적인 면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며, 이로 인하여 공황장애의 정신역동적인 요소와 생물학적인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신역동적인 면의 이해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다른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뜻이 있는 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공황장애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정신역동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해서 살펴보겠다. 저자는 첫째, separation issue, 둘째, parental loss especially maternal loss, 셋째, lack of object permanency, 넷째, Oedipal dynamic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